

라틴아메리카 속의 한국 · 한국인

■ 페루 배구계의 거목, 박만복 감독

이영미 인터뷰 · 정리

페루에서 ‘만복 박(Man Bok Park)’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박만복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페루 국가대표 여자배구팀은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이로써 ‘만복 박’이라는 이름은 페루의 배구를 상징하는 고유명사처럼 인식되었다.

페루에서는 체육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나 감독의 이름을 국립운동장의 외부벽면 상층부에 새겨서 업적을 기리는데,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박만복 감독의 이름이 그 곳에 올랐다. 이를 통해서도 페루의 체육 분야에서 박만복 감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박만복 감독과 페루 여자배구팀의 인연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세계여자배구대회가 개최되었고, 박만복 감독은 한국 여자배구팀의 감독으로서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페루배구협회장 사인스(Sainz)는 한국



박만복 감독

여자배구팀이 우승하는 경기를 관람하였고, 다음 해에 한국을 방문하여 박만복 감독에게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페루 국가대표 여자배구팀의 감독직을 제안하였다. 이때 박만복 감독이 사인스 협회장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페루 여자배구팀과 오랜 인연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974년 당시 한국에는 페루 대사가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만복 감독은 일본 도쿄의 페루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획득하여 1974년 8월 17일 리마에 도착했고, 부인과 자녀들(3남 1녀)은 1년 뒤인 1975년 페루에 입국하였다.

페루 여자배구팀의 감독으로서 박만복 감독이 참가한 최초의 대회는 1975년에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였

다. 남미 예선전에서 우승한 페루 여자배구팀은 이 대회 24개 참가국 중에서 8위를 차지했다. 그 후에도 박만복 감독은 페루 여자배구팀을 이끌고 여섯 차례 올림픽 대회에 참여했으며, 페루 여자배구의 실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박만복 감독이 올림픽 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7위,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6위, 1984년 LA 올림픽에서 4위,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은메달, 1992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8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7위를 하였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페루 정부에서는 박만복 감독에게 1977년 3월 21일 오피시알 체육훈장, 1980년 7월 24일 코멘다도르 체육훈장, 1988년 12월 16일 그란 오피시알 체육훈장을 수여했다. 우리 정부도 박만복 감독에게 1973년 11월 17일 체육훈장 백마장, 1977년 7월 20일 수교훈장 승례장, 1989년 6월 8일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했다.

박만복 감독이 선수훈련에서 누누이 강조한 항목 중 하나는 시간엄수였다. 이는 박만복 감독의 치밀한 계획과 선수들의 성실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배구 훈련은 오후 4시부터 시작했다. 박만복 감독은 운동선수도 학교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박만복



페루국립경기장 외벽에 새겨진 박만복 감독 이름

감독의 ‘고집’ 때문에 오후에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또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선수 개인의 신체리듬에 관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선수들의 가족관계는 물론 각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파악하였

다. 선수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수 가족의 취직까지 신경을 썼다고 박만복 감독은 회상했다.

이런 자료가 기록된 수첩은 박만복 감독의 필수품이었다. 감독이라기보다는 마치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보살피고 훈련시킨 덕분에,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88 그룹’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있다고 박만복 감독은 자랑스러워했다. 그 모임에서는 박만복 감독을 ‘아버지’(padre)라고 부른다.

이처럼 박만복 감독의 배구사랑은 배구라는 매개를 통해 만난 선수들과 맺어진 인간관계를 속에서 구체화되었고, 그런 감독으로서 진정성은 어린 선수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감독과 선수라는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인간적인 신뢰를 중시하였기에 선수들은 고된 훈련과정도 기꺼이 참아 냈고, 이들의 기량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된 것이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약 6년 동안, 박만복 감독은 일본 도쿄의 여자실업배구팀 감독으로 일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88서울 올림픽에서 페루와 소련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박만복 감독. 박감독은 이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배구연수프로그램 수료증

공합'을 재확인할 수 있는 쾌거였다.

국가 배구팀의 감독직에서 은퇴한 박만복은 2006년부터 현 페루 대통령인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의 권유와 신용은행(Banco de Crédito)과 신문사인 엘코메르시오(El Comercio)의 후원으로 현역 배구 감독들과 체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구 연수프로그램'을 각 지방도시를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박만복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는 4일, 2단계는 7일, 3단계는 10일 동안 매일 이론 강의(1시간)와 실습(2시간)을 통한 본격적인 지도자 재훈련 과정이다. 이 연수 프로그램의 각 단계들을 마친 사람들은 박만복 감독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은 페루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배구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그 신뢰는 박만복이라는 한국인 배구감독이 약 30년 동안 페루 배구를 위해 쌓아온 엄청난 노력과 성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페루 이주 1세대에 속하는 박만복 감독은 페루 한인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이주 초창기에 규모는 작지만 한인회를 조직하고 회장직을 맡아 교민 사회의 단합을 위해 일했다. 10년 전에는, 55세 이상 한인 사회의 지도급 인사를 중심으

페루 여자배구팀의 성적은 저조했다. 1998년 11월에 박만복 감독은 다시 페루 여자배구팀의 감독으로 복귀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미예선전에서 페루 여자배구팀은 우승하였다. 지도자로서 박만복 감독의 자질과 가치 그리고 페루 여자배구팀과 '찰떡

로 청송회(靑松會)를 조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과 페루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박만복 감독은 지난 세월을 이렇게 회고했다. “행복하다. 무엇보다도 중학생 시절부터 좋아서 시작한 배구를 평생 동안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또 다른 현장 속에서 제2, 제3의 ‘만복 박’을 길러내기 위한 그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배구 사랑을 평생을 통해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박만복 감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다.□

이영미 - 페루 가톨릭대학교(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인류학 박사과정 수료.
